

特許・實用 企業化 적극 支援

올해부터 資 支援 늘리고 節次간소화

정부는 본會 건의에 따라 올해부터 特許와 實用新案權의 企業化를 적극 支援키로 했다.

18일 商工部에 따르면 현재 中小企業의 試作品 開發을 위한 「機械類・部品・素材國産化 施策 및 工業기반 技術開發事業」을 登錄된 特許와 實用新案權에 연계 적용시킴으로써 企業化 및 商品化를 촉진, 個人發明人和 中小企業의 發明의욕을 提高하고 애써 얻은 特許와 實用新案權의 死藏化를 방지함과 함께 技術의 海外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中小企業이 自社 또는 個人發明人의 特許와 實用新案權을 企業化하거나 商品化할 경우 業體當 5억원의 한도내에서 간소한 節次를 거쳐 「産業技術向上資金」을 年利 5%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個人發明人の 경우 융자는 받을 수 없으나, 中小企業의 융자 혜택을 받기 위해 個人發明人의 特許 및 實用新案權 讓收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特許와 實用新案權을 얻은 技術의 경우 「工業發展기금」 융자를 위해 필요한 技術 검토를 생략하고, 工業發展기반 課題

선정시 技術수요조사를 삭제하는등 節次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工業發展기금은 2억원 한도내에서 年利 6%로 장기 융자하고, 工業技術 課題開發事業은 정부가 소요자금의 .30~80%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支援키로 했다.

또 特許 및 實用新案權을 企業化할 경우 優先育成業種 및 有望中小企業으로 지정, 中小企業 振興工團・企業銀行・保證기금 등을 통해 技術經營을 지도해주고 創業投資회사 또는 投資조합에 優先 投資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商工部는 이에따라 현재 세부시행규정을 마련 중에있는데, 本誌는 이 규정이 마련되는대로 詳報할 계획이다.

한편 商工部の 이같은 방침은 현재 特許・實用新案權을 企業 및 商品化하기 위해 個人發明人(學生포함) 및 中小企業을 대상으로 支援하는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費 支援은 그 규모가 1件當 1천만원내로 작은데다 실제 支援실적도 年間 25件내의 밖에 되지 않아 企業化 실적이 저조, 이를 活性化하기 위한 것이다. <※>

求 人 案 內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스에 所在 Intercontinental Enterprises Limited(IEL)는 技術과 商品의 輸出入, 研究開發, 合作投資등을 할 사람을 물색 및 추천하는 會社로 英國, 西獨, 프랑스 등 9개국에 協力者를 갖고 있으며,

韓國에서 業務協力을 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資料部
電話 (555-6892)